

1.8조 '제2 채안펀드' 내일 집행... 증권사 살림살이 나아질까

부국증권 등 7곳 지원신청 가능
대형증권사·산업은행 등서 투자
“증권사 7개사 중 5개사서 신청
300~500억 규모로 급한 불 꺼”

금융당국이 1조8000억원 규모의 '제2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 가동을 본격화한다. 증권사 보증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매입하는데, 유동성 위기 해소가 본격화되기까지는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 전망이 나온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제2 채안펀드는 오는 24일 첫 집행된다. 현재 신청 대상인 중소형 증권사는 부국증권(A2+), 유진투자증권(A2+), 이베스트증권(A2+), SK증권(A2+), 다올투자증권(A2), 한양증권(A2), 케이프투자증권(A2-) 등 7개사다. 각 2000억원을 한도로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이 프로그램은 PFABCP 매입을 신청하는 증권사에서 후순위로 4500억원을 내고 9개 대형 증권사가 중순위로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의 모습. /뉴시스

4500억원 출자한다. 여기에 KDB산업은행과 한국증권금융이 선순위 투자자로 각각 4500억원씩을 더했다. 총 1조8000억원 규모다.

특수목적법인(SPC)이 만기가 돌아오는 증권사 보증 PF ABCP 가운데 해당 증권사의 매입 신청이 들어오면 심사를 거쳐 주 단위로 집행하는 방식이다. SPC 존속기간은 6개월, 공동 주관

사는 NH투자증권, 메리츠증권, 한국투자증권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7개사 중 현재 5개사가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ABCP 규모를 고려해 아직 회사 내부에서 검토 중인 곳들도 있어 변동이 가능하다”고 귀띔했다.

신청 증권사들은 PF ABCP 매입 프로그램이 유동성 위기 완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증권사 관계자는 “지원받을 여력이 있으면 받는 게 당연하다”며 “낙인효과를 우려해 구체적인 금액의 규모는 밝힐 수 없다. 지금 당장 문제가 없더라도 안정적인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미리 채안펀드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대부분 증권사들이 300~500억원대 규모로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자체적으로 리스크 점검을 하기 때문에 시장이 우려할 정도로 위급한 상황은 아니지만, 올해 연말까지 급한 불은 꺼지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라고 답했다.

한편, 정책자금을 통한 ABCP 매입만으로 근본적인 자금경색 해결은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이투자증권에 따르면 오는 12월까지 만기가 도래할 예정인 PF ABCP와 PF 자산유동화전자산기사채(ABSTB) 규모는 약 34조원으로 집계됐다.

김명실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방을 중심으로 시작된 부동산 경기 침체는 수도권까지 전이된 상황”이라며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기업어음(CP) 금리 수준도 이를 방증한다. 또 연말 북클로징(book closing·회계연도 장부 결산)으로 인한 수급불균형도 고려하면 투자자들은 당분간 신중한 접근을 할 공간이 크다”고 밝혔다.

그는 “이미 확산된 신용위험이 단기간에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다소 위험해 보인다는 판단”이라며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속도 조절 속에 내년 초 시장 내 자금 유입이 원활히 나오기 전까지 단기 자금 시장의 자금경색이 지속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모락 대신증권 연구원은 “크레딧채권시장이 이미 통상적인 금리 상승이나 스프레드 확대를 넘어서 ‘경색’ 단계에 진입했던 것만 만큼 단기간에 정상적인 수준으로의 복귀는 순탄치 않아 보인다”며 “크레딧 안정은 국제 채권 시장 내 안전자산이 먼저 안정세에 진입하고 상당 시간이 소요된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기대 인플레이션 두달째 하락... 집값전망 사상최저 수준

한은, 11월 소비자동향조사
전달보다 0.1%p 하락한 4.2%
주택가격전망지수 5개월째 최저

앞으로 1년 뒤의 물가상승률을 전망하는 기대인플레이션이 소폭 하락했다.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운용할 때 참고하는 주요 지표 중 하나다.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2022년 11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전달보다 0.1%포인트(P) 낮은 4.2%로 집계됐다. 기대인플

레이션은 지난 7월 4.7%로 정점을 찍은 뒤 두 달 연속 하락했으나 여전히 4%대를 유지하고 있다.

대출금리 인상, 아파트값 하락세로 집값 전망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내려갔다. 11월 주택가격전망지수(61)는 전달보다 3p 내려가면서 지난 7월부터 다섯 달 연속 역대 최저 기록을 갈아치웠다. 1년 뒤 집값 하락을 예상하는 소비자의 비중이 더 늘었다는 의미다.

소비자들의 기대인플레이션은 공공요금과 석유류제품에 집중됐다. 향후 1년간 소비자 물가상승에 영향을 미칠 주요

품목(복수선택)을 질문한 결과 공공요금(59%)과 석유류제품(39.1%)의 비중이 가장 컸다. 농축수산물이라고 응답한 비중도 37.1%로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소비자들의 종합적인 경기인식을 나타내는 소비자 심리지수는 86.5로 전달보다 2.3p 하락했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소비자동향지수(CSI) 중 6개 주요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심리지표로서 장기평균치(2003년 1월~2021년 12월)를 기준 값 100을 기준으로 100보다 크면 소비심리가 낙관적,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으로 해석한다.

소비자 심리지수를 구성하는 6개 구

성지수는 현재생활형편을 제외하고 모두 감소했다. 현재생활형편은 83으로 전달과 동일했고, 생활형편전망(82) 가계수입전망(93) 소비지출전망(107), 현재경기판단(46), 향후경기전망(54)로 전달과 비교해 평균 1.8P 줄었다.

금리수준전망(151)은 기준금리 추가 인상 예상 등으로 1P 상승해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주택가격전망(61)은 지속되는 금리상승, 가계대출 규제 등의 영향으로 3P 하락했다. 물가수준전망(156)과 임금수준전망(113)도 각각 1P 낮아졌다.



‘불쾌한 골짜기’ 우려 여전... 성 상품화 등 부작용 가능성도

>> 1면 '기술 스펙트럼'서 계속

롯데홈쇼핑은 가상인간 '루시'를 지난해 12월 쇼호스트로 데뷔시켰다. 올해 안에 라이브커머스 진행자도 맡을 예정이다. 롯데홈쇼핑은 시각특수 효과, 리얼타임 엔진 등 최신 기술을 투입해 양방향 소통이 가능하도록 루시를 고도화한다는 계획이다.

네이버는 지난 5월 자이언트스텝과 공동 개발한 버추얼 휴먼인 '이슬'을 뷰티 브랜드 나스 신상품 론칭쇼에 데뷔시켰다. 이슬은 리얼타임 엔진을 기반으로 제작돼 자연스러운 모션 연출이 가능하다.

가상인간은 금융권 등으로 적용이 확대되고 있다. 한화생명도 버추얼 휴먼 '한나'를 자체 개발했다. 금융권이 버추얼 휴먼을 직접 개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나는 MZ 세대를 대표하는 버추얼 FP(재무설계사)이자 사내 인플루언서로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신한생명도 오렌지라이프가 합병

한 신한라이프는 지난해 7월 출범과 동시에 가상인간인 '로지'를 모델로 세웠다. 로지가 출연한 신한라이프 유튜브 광고는 공개 20일 만에 누적 조회수 1000만뷰를 돌파했다.

◆ '실시간 인터랙션'이 안된다

AI 가상인간 제작은 활발하지만, '불쾌한 골짜기'를 아직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지금보다 더 사람 같아 보이는 기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70년 일본의 로봇 공학자 모리 마사히로가 발표한 '불쾌한 골짜기' 이론을 보면 사람은 로봇처럼 사람과 유사한 모습일수록 호감을 느끼지만 어느 순간 호감도는 급격히 떨어지게 된다. 호감도는 인간과 유사성이 100%에 가까워질수록 다시 올라간다는 것이다.

가상인간 기술이 갖는 기술적인 한계도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가상인간은 좌우로 45도, 상하로 30도까지 각도는 자연스럽게 구현된다. 그 이상을 구현

할 때는 매끄럽지 않게 표현되는 일이 잦다”며 “가상인간이 더 많은 각도를 구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가상인간이 눈물을 흘리거나 손으로 얼굴을 손으로 가린다가 하는 장면은 AI 페이스 스와프 기술로는 구현하기 힘들다.

또 가상인간이 현재 컴퓨터의 문제로 '실시간 인터랙션'이 안 된다는 문제도 있다.

AI 관련기업인 제네시스랩 관계자는 “알고리즘 자체는 어느 정도 실시간 인터랙션이 가능한 수준까지 올라왔지만 연산을 할 때 일반 사용자들이 가진 컴퓨터, 휴대폰에서는 GPU(그래픽처리장치)를 엄청나게 소비하는 컴퓨팅적인 문제가 생기게 된다”고 지적했다.

가상인간이 챗봇과 같은 형태로 나오면 어떤 대답을 할지 몰라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가상인간의 퀄리티가 높아질수록 실제 사람과 구별이 어려워지는 시점이 올 건데 디페이크 문제들이 나올 수 있다.

/채윤정 기자 echo@

‘한한령’ 풀리나... 中 OTT에 韓 영화 서비스

尹 대통령 G20서 中 시진핑과 회담
한한령 후 6년만... 교류 확대 기대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3년 만에 정상회담을 가진 뒤 중국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에 한국영화 상영 서비스를 재개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6년 중국이 한류 유입을 금지한 이른바 ‘한한령’ 조치 이후 6년 만에, 대통령실은 향후 양국 간 문화 및 인적 교류의 확대를 기대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과 시 주석이 지난 15일, 3년 만에 정상회담을 했다”며 “협력의 물꼬를 트면서 새로운 한중 관계 발전 의지를 재확인했다. 6년간 중국에서 정식 수입이 금지된 한국영화 서비스가 개시됐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한중정상회담에서 작은

시작이지만, 큰 의미 있는 앞으로의 미래가 될 것이라 기대하고 싶다”며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양국 국민 교류의 중요성, 특히 청년 세대 간 소통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시 주석도 공감을 표했다”고 전했다. 이어 “중국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개시를 통해 윤 대통령에 화답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김 수석은 한중정상회담 당시 윤 대통령과 시 주석 간 나눈 대화도 공개했다. 김 수석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한중 관계는 수교 이래 30여년 간 교역과 투자, 인적 교류와 같은 양적 측면에서 비약적으로 성장하며 서로 많은 도움을 받았다”면서 “앞으로는 양국 관계가 질적으로도 도약시켜 나갈 시점이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건강한 미래를 위해 민간 교류의 확대가 중요하다”며 “문화, 관광, 교육과 같은 양국 국민 간 교류가 활발히 진행돼야 상호 문화를 깊이 이해하고 호감을 갖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